



2013/09/04

건설업 투자전략

[건설] 조주형 3771-9675

해외수주 성과(8월 누계) 분석과 의미

- 업종 투자의견: 중립, 국내의 발주시황 침체 지속, 수주 실적 양호한 업체에 집중하는 전략 필요
- 최선호주: 삼성물산, 현대건설
- 관심주: 대우건설, 대림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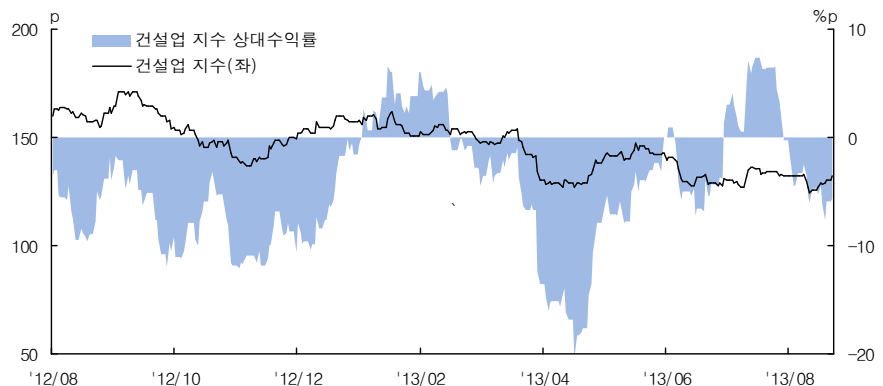
해외수주 성과 양호한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긍정적

업종에 대한 투자의견은 중립을 유지한다. 이는 국내외 발주시황 침체 전망과 이로 인한 대다수 업체의 실적 모멘텀 약화를 주로 감안한 것이다. 우리는 국내 업체가 수주에 강점을 보였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석유관련 플랜트 물량 감소와 전반적인 수주 경쟁 심화로 인한 수주 성과 부족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국내 발주시황도 토목과 주택 물량의 추세적인 감소 전망을 감안해 부진한 모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당 리서치는 이런 어려운 국내외 발주시황에서도 최근 8월까지 해외에서 전년 동기대비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룬 업체들에 대한 투자 관심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해외에서의 수주 물량 증가는 외형 및 이익 성장 전망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요 대형사의 경우, 국내 수주 물량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8월까지의 해외수주 성과를 종합해 본 결과,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대림산업(해외수주금액 순)에 대한 긍정적인 매수 시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들 업체는 공히 전년동기대비 큰 폭의 해외수주 물량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중기적인 실적개선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들의 특징은 토목 공종(발전 포함)과 아시아 지역에 수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 리서치는 최근의 발주 시황과 향후 발주 진행 예정 사업 등을 감안할 때, 토목 공종(발전 포함)과 아시아 지역 발주 시황이 가장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최근 이슈가 된 동남아 금융위기가 현재보다 더 악화될 경우, 아시아 지역 발주시황의 단기 급랭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표 1. 건설업종지수와 시장대비 상대수익률(3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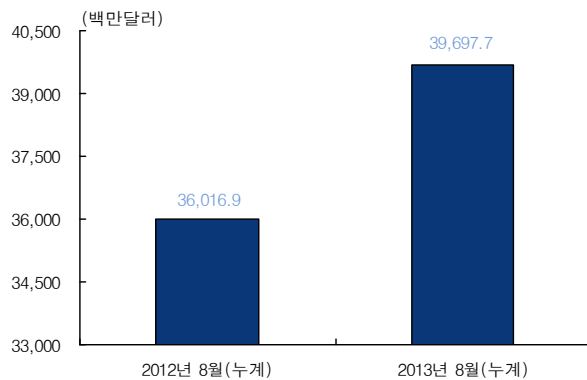


자료: Dataguide,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8월(누계) 해외수주
397억불(+10.2%, 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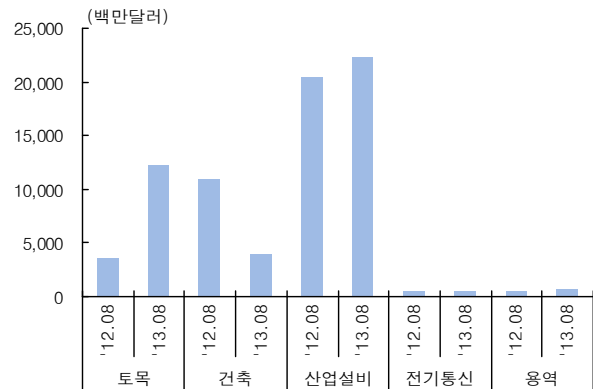
해외건설협회 자료를 참고로 할 때, 8월까지 수주(누계)는 총 397억불(+10.2%, yoy)를 기록했다. 산업설비 공종이 금액으로는 223억불(+9.0%, yoy)로 가장 컸지만, 전년대비 증가는 토목이 월등한 모습을 시현했다. 토목은 올 8월까지 123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242.8% 급증을 기록했다. 건축공종은 40억불로 전년대비 63.4%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도표 2. 8월(누계) 해외수주, 전년동기대비 비교



자료: 해외건설협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3. 공종별 해외수주, 전년동기대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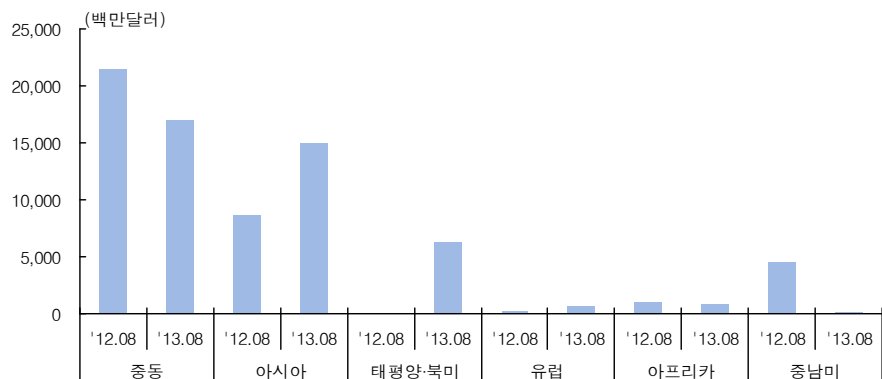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금액은 8월 누계)

8월(누계) 해외수주
중동은 감소, 아시아 급증

지역별로 보면, 올해도 중동에서 가장 많은 수주 성과가 있었다. 중동지역은 올 8월까지 170억불(-21.1%, yoy)을 기록했다. 아시아 지역은 150억불로 전년대비 73.8%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아프리카와 중남미 시장은 각각 8억불, 0.9억불로 전년대비 각각 -19.2%, -98.1%를 시현했다.

도표 4. 지역별 해외수주, 전년동기대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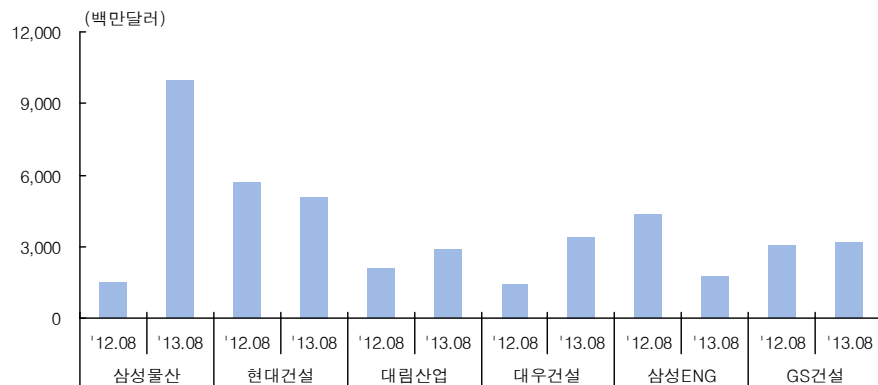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금액은 8월 누계)

8월(누계) 해외수주
삼성물산 급증
대우건설과 대림산업도
양호한 물량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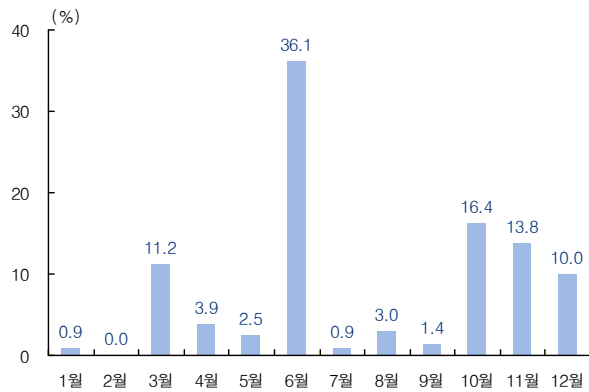
업체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100억불로 전년동기대비 579.6% 급증했다. 현대건설은 51억불로 전년동기에 비해 11.0%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은 각각 34억불, 28억불로 전년동기대비 +134.0%, +34.5%를 기록했다. GS건설은 전년과 비슷한 31억불을 확보했고, 삼성엔지니어링은 전년동기대비 60.1% 급감한 17억불의 부진한 수주 실적을 나타냈다.

도표 5. 업체별 해외수주, 전년동기대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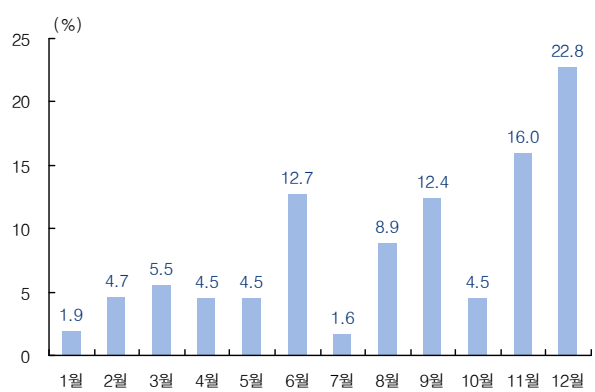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금액은 8월 누계)

도표 6. 중동 2012 년 월별 수주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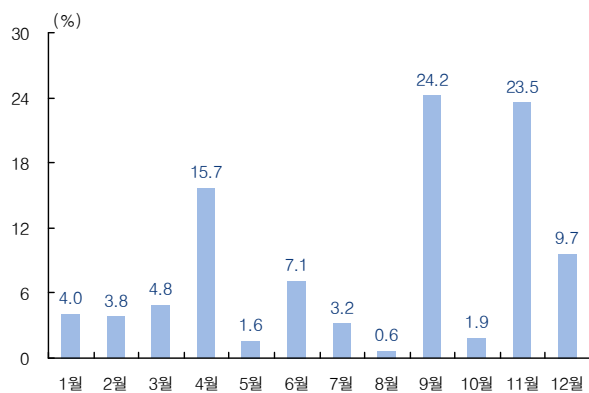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 아시아 2012 년 월별 수주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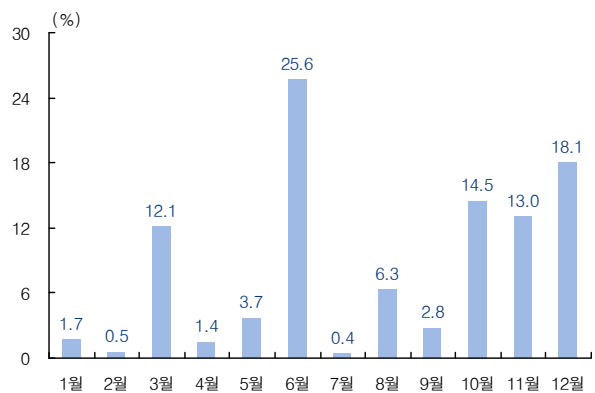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8. 토목 2012 년 월별 수주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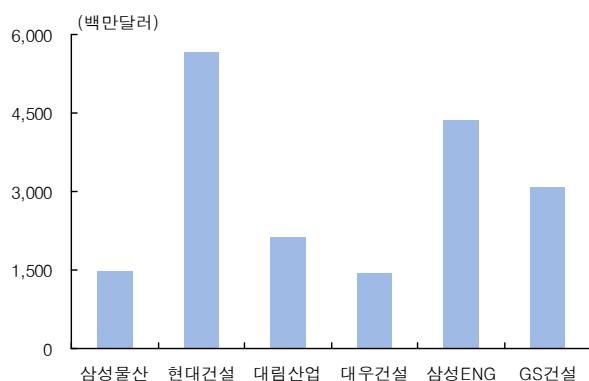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9. 산업설비 2012 년 월별 수주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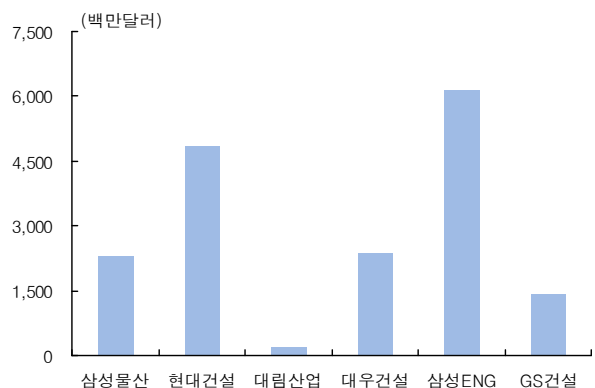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0. 업체별 2012 년 1~8 월 수주금액



자료: 해외건설협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1. 업체별 2012 년 9~12 월 수주금액



자료: 해외건설협회,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 조사항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사항목은 투자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사항목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전일기준 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추천종목은 전일기준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 : 향후 6개월 기준, 2008.7.1일 Trading Buy 등급 추가
 적극매수(Strong Buy):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30% 이상
 Trading Buy: KOSPI 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되거나 불확실성 높은 경우
 매도(Sell):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 이하

매수(Buy):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30% 이내
 보유(Hold): KOSPI 대비 기대수익률 -10~10%

▶ **업종 투자인견**

비중확대(Overweight): 업종 펀더멘탈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비중축소(Underweight): 업종 펀더멘탈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중립(Neutral): 업종 펀더멘탈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